

‘형님 리더십’ 이끌고 철벽 선발·최형우 효과 뒷받침

광주시민들에게 오후 6시 30분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는 시간이다. 야구가 시작되는 시간, 호랑이 본능을 되찾은 KIA 타이거즈의 거침 없는 플레이를 보며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예상치 못한 지난 불이었다. 시즌 무경을 열기 전 많은 이들은 ‘디펜딩 챔피언’ 두산 베이스의 독주 속 5강 고지를 향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KIA는 5강 후보에나 언급되던 팀이었다.

그러나 6시리즈 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일찍 시동을 건 KIA는 4월 12일 공동 1위에 오른 뒤 14일 부터는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KIA는 2위에 두 경기 차 이상 떨어져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3년차 김기태 감독의 ‘믿음 야구’

임기영·이명기 맹활약 끌어내

올 시즌은 김기태 감독이 고향팀에서 보내는 세 번째 시즌이다. 재계약을 앞둔 해이기도 한 올해 지난 2년 강조해왔던 ‘동행 야구’가 꽃을 피우고 있다. ‘선수들이 잘해서, 내가 못해서’라며 선수들의 공을 강조하고 있는 김 감독은 믿음으로 동행을 해가고 있다.

2017시즌 깜짝 전력인 임기영과 이명기의 활약에는 김 감독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4월 5일 SK와의 홈경기서 ‘임시 선발’로 선발 데뷔전을 준비했던 임기영은 이날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에이스 헥터가 날짜대로 선발 출격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김 감독은 임기영을 믿고 선발 기회를 내줬다. 6일 경기가 끝난 후 임기영은 “받아 주신 감독님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SK 에이스 켈러를 상대로 했던 이날 임기영은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6-4 승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임기영은 지금 팀의 믿음직한 선발이다.

이적생인 이명기도 익숙한 좌익수가 아닌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포구 실책을 하는 등 아찔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다음 경기에 빠질 것으로 생각했다”던 이명기는 그러나 다음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했고, 지금은 테이블 세터로 부지런히 발상을 차리고 있다. 초반 제 몫을 해주지 못했던 베나디나의 부활을 위해서도 김 감독은 ‘1년 보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고, 천덕꾸러기였던 베나디나는 빠른 발과 힘을 겸비한 토타자로 KIA 공격의 불씨를 트고 있다.

‘100억 사나이’ 해결사 최형우

든든한 중심타자 찬스마다 평평

KIA는 지난 스토브리그의 큰 손으로 눈길을 끌었다. 집토끼 나지완을 잔류시키던 데 이어 FA(자유계약) 사상 첫 100억 벽을 깨면서 KBO리그를 대표하는 4번 타자 최형우를 영입한 것이다. 결정적 있고, 꾸준한 타지를 영입했다는 평가 뒤에는 ‘100억’이라는 가치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다. 그러나 이내 물음표는 지워졌다. 최형우는 ‘진정’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했던 2017시즌 개막전에서부터 결승타 주인공이 되며 KIA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조용하게 공격에 불을 붙인 그는 지난 5월 13일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선빈, 헥터, 김기태 감독, 서동욱, 최형우, 나지완, 안치홍, 김민식, 임기영, 베나디나 선수.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는 9회 동점 홈런에 이어 연장 11회 결승 홈런을 연달아 날리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기도 했다.

개인 성적뿐만 아니라 ‘4번 타자’로서 만들어내는 최형우 효과도 크다. 김주찬의 부진과 부상으로 완벽한 클린업 트리오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형우가 타선의 중심에 서면서 상대 배터리 부담이 늘었다.

선발 야구의 힘

4선발 평균 7이닝 이상씩 소화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KIA의

2017시즌이다. 에이스 헥터와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연속 행진으로 1위 독주를 이끌었다. 헥터가 6연승을 달리는 등 올 시즌 2.29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을 수확했다. 아직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무패 행진’ 속에 든든하게 선발진을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 3연패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승운이 따르지 않아 고전했던 양현종도 7연승으로 2017 시즌 스타트를 끊었다.

‘신입 외국인’ 팻딘도 순조롭게 한국 무대에 적응하면서 3선발 자리를 꼭 채웠다. 여기에 ‘샷발’ 임기영까지 더해져 선발진들은 평균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기싸움을 이끌고 있다.

5선발 고민이 남아있지만 지난 4월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9년 차 좌완 정용운이 깜짝 호투로 데뷔 첫 승을 올리며 귀한 1승을 보탤다. 정용

운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김진우를 대신해 마지막 선발진 카드 맞추기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라인 중심 토털 야구

김선빈·안치홍 콤비 ‘환상 호흡’

중심이 잡히면서 큰 위기 없이 KIA의 2017시즌이 흘러가고 있다. SK와의 과감했던 ‘4대4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포수 김민식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센터라인을 지키고 있다. 안정된 수비에 기회에 강한 타격까지 공·수에서 ‘안방 마님’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의 환상적인 호흡도 눈에 띈다. 두 사람은 빠른

고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의 봉쇄 하고 있고 타석에서는 다양한 자리에 위치해 때때로 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수비행이었던 베나디나의 화려도 살아나면서 KIA 공격력이 향상됐다.

안정된 센터라인과 함께 선수들의 전천후 활약으로 전력을 최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체력 안배와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전천후 수비수’들이 뛰고 있다. 서동욱이 KIA에서 처음 3루수 자리에 서기도 했고, 베나디나도 1루로 이동해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배치로 전력의 최대화를 이루고 있다.

두려움을 지운 선수들의 거침 없는 질주. 김 감독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강해졌다. 선수들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체질 개선에 성공한 KIA가 6시30분을 기다리게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 (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보험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 가입(여행비용 : 1억원, 국내승용 5인만),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별도항사항 : 개인 여행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상 품 특 전 : 투박강투어(목공예마을+도지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발 마사지 60분(발, 발목, 손목, 손목, 손목, 손목)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알코올 1인 1회, 관광차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포츠 마사지 1시간
별도항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50,000/인·5일, ₩60,000/인·6일) ※연인, 아동, 중장년객은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 가입(여행비용 : 1억원, 국내승용 5인만),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별도항사항 : 개인 여행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